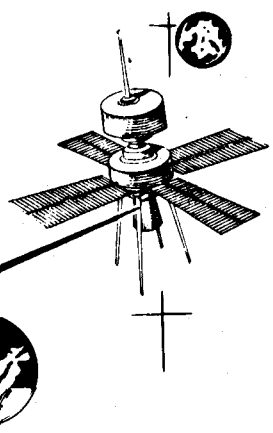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용의 해가 시작된다.

이달 18일부터는 戊辰年이 시작된다. 단기로 4321년이 된다.

용(竜)의 해라고 한다. 여의주(如意珠)를 가진 용의 그림이나 조각물을 보게 되는데 용꿈만 꾸어도 만사형통하고 수험생은 장원급제 한다고 하니 금년은 무언가 잘 풀려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용은 물속에 살다가 때를 만나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설은 땅보다도 더 낮은 물속에서 갖은 고생 끝에 승천이라는 성공의 극치를 맛보게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사상이 담겨 있다.

원래 물속에 사는 가장 작은 물고기였는데 큰 물고기한테 잡혀 먹히기 시작해서 그만 멸종의 위기에까지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처하자 크게 깨달은 놈들이 나서서 쌓여온 원한을 짓씹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물고기의 몸에는 단단한 철갑 비늘이 돋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작은 물고기는 천하무적이 되었고 자기세계의 실현자가 되어 승천하게 된다.

용의 해를 맞아 작은 물고기로만 보이던 영세한 소를 기르는 축산인들이 과천에서 세종로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투쟁의 대상이 수출 상대국이건 쇠고기를 수입해서 이익을 보는 무역상이거나 또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자동차 전자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재벌이건 또는 이를 결정하는 정부이건 간에 한번 시위 때마다 철갑 비늘이 하나씩 돋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입 연기에서 또한 수입해도 피해 농민에게

는 보상을 한다든가 또는 소값을 120만원 정도로 보장한다는 등의 것들이다.

소보다 더 작은 양계인들도 대회를 갖고 일어선다고 한다.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계란 소비를 많이 하는 제과업자의 횡포에도 투쟁하여 조그만 철갑비늘을 달았다. 가격덤핑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양돈인들이 거대한 재벌 해태상사와의 싸움에서 튼튼한 철갑비늘을 단것 만은 못해도 이런 비늘이 모여서 온몸을 싸게 되면 자기 실현을 하게된다. 철갑비늘을 달고 양계산업도 자기세계의 실현자가 되어 승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용의 해를 맞아 기대해 본다.

계란값의 안정

계란값이 오랜동안 생산비 이하로 거래 되었다. 가격 뿐만이 아니고 2중 3중가격이 형성되어 양계농가의 피해가 크고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이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지만 계란의 경우에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계란소비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공급지역이 대전 이북의 광대한 지역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경북 김천 등 지방에서까지 소비지인 서울로 계란이 상경하고 있다.

품질도 난각질, 파란율이나 같은 특란이라도 평균중량 등이 지역에 따라 농장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란의 오물 회손 등 상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 하루속히 정부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규격기준을 정해 통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상품의 위치 품질이 다른 것을 통일된 가격으로 고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육계에서 처럼 김포지역 시세와 당진 서산지역 시세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같은 값이면 소비지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이 경쟁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100㎞ 양계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여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없었고 그후에도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비수기를 지나면 다시 성수기가 되어 별탈없이 넘어가곤 하였다.

최근의 과잉생산이란 말도 계란값이 괜찮은 성수기가 너무 짧고 비수기가 장기화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계란의 저장 가공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공급조절의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격의 등락이 심각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다음으로 영세한 양계인과 영세한 상인에 의하여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생산자가 조합이나 계우회 단위로라도 뭉쳐서 대외 교섭력을 갖지 못하고 상인들도 영세한 많은 상인의 경쟁속에서 유통이 이루어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약자인 생산자를 울리게 마련이다. 하루 계란 5만개를 처리하여 한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유통비용 1원과 이윤 1원을 합해 최소한 농장도 가격에 2원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극심한 경쟁은 이러한 최소한의 마진조차 보장 안되고 파란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다. 그래서 가격 하락시 2중가격 3중가격을 만들려고 조작하게 된다.

농산물이 대부분 그러하듯 대량유통 대량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유통마진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어 질 것이다. 이미 가격형성이 대상인중심에서 중상 소상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정보 통신의 발달과 소비자 조

합의 결성은 수퍼마켓에서 소비자와 소매상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중앙도매시장의 설치도 제기능을 발휘할지가 의문이다.

생산자와 유통상인간의 폭넓은 신뢰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행위가 끝난 후에 장기(帳記)가 오가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후장기 제도는 생산자가 감각적으로 받는 가격과 후에 계산서와는 차이가 있어 가격고시와 시장조사에 더욱 혼란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발전단계에서의 혼란으로 이 기간을 빨리 청산하고 다음의 도약단계인 안정화의 길로 뛰어 넘어야 한다. 기본문제를 제쳐 놓고 주요문제만을 다루다 보면 문제의 해결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를 먹으면서 쇠고기 수입을 생각한다

금년들어 축산인들이 많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만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신문 경제면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미국과의 장사에서 92억불을 벌어서 일본하고 장사에서 적자본 54억불을 메꾸었다는 것과 이렇게 형평을 잃은 장사로 수입개방 압력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제품을 수출하는데 많은 부분의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다 조립해서 미국에 팔고 그 대가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으로 우리나라의 영세한 축산농가의 설자리가 좁아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재미는 일본의 자동차 전자 부품 제조업자가 보고, 피해는 한국의 축산업자가 당하니 불공평 할 수밖에 없다.

축산인이 가장 무서운 것이 축산인을 등치는 악덕 상인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미통상대표부(USTR)와 미통상법 301조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난 22일 정인용 부총리는 성북동 대원각(大苑閣)에서 축협대표들(낙농인 대표도 2명참석)과 쇠고기로 점심을 들면서 쇠고기 수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고 보도되었다. 301조가 발동되면 큰일이니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하고 그대신 소값이 마리당 120만원(쇠고기 수입당시 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즉각 무제한 수매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배합사료의 관세 부가세 감면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양축가들은 83년 소값 파동때 정부의 무제한 수매가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수매해서 창고에 쌓아 놓으면 장기적으로 가격회복의 길을 막아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영세 축산농가에서부터 차례로 쓰러져 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안다. 쓰러진 만큼 생산량이 줄고 그만큼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은 목화 콩 소맥 등에서 경험하였고 쇠고기 수입에서 재확인 하였으며 이제 또한번 확인실험을 하려하고 있다.

그때마다 수입에서 생긴 돈으로 생산기반조성에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기도 한다. 텍사스의 소를 기르는 카우보이 압력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면 한국축산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10억달러 이상의 곡물수출에 영향을 받아 콘벨트 지역의 곡물생산농가가 피해를 입는데 그 농가수가 텍사스의 소 기르는 농가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곡물생산자 단체를 통해 수입개방 압력을 막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의 요구가 쇠고기 담배 보험업의 시장개방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최종 요구가 아니고 무역수지 역조를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쇠고기 담배의 수입개방으로 무역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쇠고기가 수입개방된 후에는 사료곡물생산농가를 위해서 닭고기 돼지고기의 수입개방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내 사료수요가 늘어 미국의 곡물생산농가뿐만아니라 양계 양돈 및 생산처리 유통 수출업자까지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게 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농민을 위해서 쌀수입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9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농축산업이 기초산업이므로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는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배합사료의 부가세 면세나 무제한 수매비축으로는 애당초 해결될 수도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백기를 드는 것과 같다.

전쟁에서 사기가 중요하듯 이제 축산업자의 사기를 높여주는 정책이 새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안

정적 축산발전을 위한 대안은 그간 지상에 수차례 발표되었고 EC여러나라에서 성공사례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 우리도 할수 있고 해야 된다는 의지만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호텔용 쇠고기가 수입개방되고 그후에 일반 요식업소 정육점까지 확대될 경우 우리는 값싼 꼬리곰탕 우족탕을 즐기며 이빨을 쑤시고, 젊은 세대들은 쇠고기가 듬뿍 든 커다란 햄버거를 먹으며 식생활의 서구화가 곧 선진국이 된 것으로 착각하며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겠지만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쿠웨이트나 사우디 등 산유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석유도 없고 다른 뚜렷한 자원도 없는 우리가 갈길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확실한 것이다.

약이 독이 될 수 있다

"너 지금 뭘하고 있니?"원숭이가 냇물에서 물고기를 집어 올려 나뭇가지 위에다 갖다 얹고 있기에 물어 보았더니,

"빠져 죽지 않게 건져주고 있는 참이야"라고 대답하더라고 한다.

명분은 물고기를 위한다는 것인데 결과는 물고기를 죽이고 만다.

새해부터 쇠고기와 양담배 수입개방이 온통 정치 사회 경제문제의 머릿기사가 되고 있다. 물론 축산업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4.19이후 실로 오랫만에 정부종합청사 유리창 등 기물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정부의 산하기관 정도로만 생각해오던(?) 축협의 조합장님들도 파천에 몰려와 큰 소리를 외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새해부터 느낄 수 있었다.

쇠고기를 수입하는 명분도 한국경제가 물에 빠져 죽지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주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어야 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소를 기르는 농가에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닭이나 돼지를 기르는 농가는 피해를 보아도 보상의 대상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양축업자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많은 일들을 해왔다.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축사육수수를 줄이는데 배합사료 생산량을 조절하는 기발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료사료의 해외의존을 줄이고 사료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곡류의 사용이 제한되고 국내 부존자원 활용의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닭 돼지도 일정기준 이상은 등록 또는 허가제로 사육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축명령을 내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양축인을 건져낸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7년 후반기는 유례없는 극심한 양계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어 왔고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유통조직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일시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생산만을 억제하는 자율과 창의가 제약되고 시장기능이란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금년 3월이 되면 6공화국이 출범하여 정치에서부터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민주화되어 간다고 한다.

원숭이 입장이 아닌 물고기 입장에서 모든 일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증산이 감산으로, 쇠고기 수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에서 수입 불가피로, 배합사료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 활용 등 좋은 말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무모할 정도로 강조해오던 사료곡물쿼터제도 갑자기 완전수입개방된다는 보도에 접하니 정책의 일관성 없는 급선회에 농민은 어지러울 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올림픽 후의 새로운 변화에 물고기가 살길을 찾아야지 원숭이에게 맡기는 것은 나무가지 위로 올라 갈 수가 있다. 양계